

제65회 SGRA-V포럼
제 5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일시 : 2021년 1월 9일 (토) 오후 2시부터 5시 15분까지 (한국 시간)
 방법 : 온라인 (Zoom 이용)
 주최 :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글로벌연구회(SGRA)

■개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글로벌연구회(SGRA)는 2016년 이래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를 4회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 온라인으로 하루 일정의 프로그램 개최를 시도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3개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근대사 속의 전염병에 대해 연구발표하고 동아시아 지역 교류사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일본어⇔중국어, 일본어⇔한국어, 중국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포럼 종료 후에는 강연록(SGRA 레포트)을 작성하고 또 참가자들의 에세이 등을 메일매거진 등을 통해 널리 사회에 발신할 예정이다.

■테마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교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염병 발생과 유행이 한중일 3국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양상을 검토한다. 전염병은 단지 일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번히 왕래하고 있던 상인들과 사절들에 의해 확산되어 많은 인적 피해를 초래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은 여러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전염병에 대한 치료방법과 같은 의학 지식의 공유와 방역을 위한 규제규칙 제정 등이 실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떠한 대응책을 준비했는가를 살펴보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프로그램

제 1 세션 (14:00-15:40) 좌장: 무라 카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				
	환영인사	이마니시 준코(今西 淳子)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개회인사	조 광(趙 珖)	국사편찬위원회(한국)	
한국	발표(20분)	박 한민(朴 漢珉)	동북아역사재단	개항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일본	발표(20분)	이치카와 토모오(市川 智生)	오키나와국제대	19세기 후반 일본의 감염병 대책과 개항장
중국	발표(20분)	위 신중(余 新忠)	남개대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 변천과 성격
한국	지정 토론	김 현선(金 賢善)	명지대	
일본	지정 토론	시오데 히로유키(塩出 浩之)	교토대	
중국	지정 토론	친 광(秦 方)	수도사범대학	
제2세션 (15:45-17:15) 좌장: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논점정리	류 지에(劉 傑)	와세다대	

	자유토론	패널리스트(국사대화 프로젝트 참가자) 한국: 이 명미(李 命美, 경상대), 김 보광(金 甫桃, 가천대), 허태구(許 泰玖, 카톨릭대), 최 주희(崔 姪姬, 성덕여대), 한 승훈(韓 承勳, 한국예술종합학교), 한 성민(韓 成敏, 대전대), 김 경태(金 罔泰, 전남대), 정순일(鄭淳一, 고려대) 일본: 무카이 마사키(向 正樹, 도시샤대),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 康博, 릿쿄대), 아오야마 하루토시(青山 治世, 아세아대), 야오 게이스케(八百 啓介, 기타큐슈시립대), 오카와 마코토(大川 真, 주오대), 히라야마 노보루(平山 昇, 가나가와대), 오쿠보 다케하루(大久保 健晴, 게이오의숙대) 중국: 쟡 지에시(鄭 潔西, 영과대), 쑨 웨이궈(孫 衛國, 남개대), 쑨 칭(孫 青, 복단대), 펑 하오(彭 浩, 오사카시립대), 리 언민(李 恩民, 오비린대) 게스트: 아카시 야스시(明石 康, 전 국제연합사무차장), 양 바오(楊 彪, 화동사범대), 왕 웬룽(王 文隆, 남개대), 단 루이충(段 瑞聰, 게이오의숙대), 옵저버: 거 자오광(葛 兆光, 복단대), 치 메이친(祁 美琴, 중국인민대)		
	총괄	송 쯤용(宋 志勇)	남개대	
	폐회인사	미타니 히로시(三谷 博)	아토미학원여자대	
※	동시통역	한국어⇔일본어 : 이 혜리(李 惠利, 한국외대) , 안 영희 (安 暎姬, 한국외대) 일본어⇔중국어 : 정 리(丁 莉, 북경대) 、 송 강(宋 剛, 북경외대) 중국어⇔한국어 : 김 단실(金 丹實, 프리렌서), 박 현(朴 賢, 교토대)		

■스케줄

9월 8일 (화)	발표자와 동시통역자에게 위촉장 송부
9월 30일 (수)	발표요지 마감 국사대화 5V 홈페이지에서 공개
10월 12일 (월)	Zoom참가등록 개시
10월 31일 (토)	발표원고 마감
12월 20일 (일)	참고자료 (圖表、パワーポイント、読み上げ原稿) 締切 발표논문 번역판 홈페이지에 게재
1월 9일 (토)	국사 온라인 대화 당일

■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의 경위 :

아즈미 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7월, 제 49회 SGRA(세키구지 글로벌 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년 9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 (동경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 (복단대 교수), 조광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세 나라의 여러 ‘국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 년 8 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 명의 국사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행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행해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제 3 회 대화에서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 년 8 월, 한국·일본·중국에서 9 명의 국사연구자가 서울에서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조선침공과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의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3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와세다대학이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 이라는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제 4 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테마로 202년 1월에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의 한국·일본·중국의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3 개 국어에 대응한 레포트의 배포와 메일매거진의 릴레이 에세이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국사들의 대화 레포트 백넘버

제1회 국사대화 레포트 「한국·일본·중국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http://www.aisf.or.jp/sgra/active/report/2017/8730/>

제2회 국사대화 레포트「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http://www.aisf.or.jp/sgra/active/report/2017/10611/>

제3회 국사대화 레포트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http://www.aisf.or.jp/sgra/active/report/2018/14261/>

■메일매거진 백넘버

<https://kokushinewsletter.tumblr.com/>